현대인에 맞게 재정리한 부처님 원음 '니까야'



부처님의 당부
비구 보디 지음
민우 스님 옮김 · 등현 스님 감수
사유수 / 4만3천원

10개 주제에 맞게 〈니까야〉 선별 재구성
각 장마다 '들어가기'로 동기·효과 높여
유기적 구조에 다양한 경전들 포함시켜
교법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림
"불교공부의 체계 더하는 데 도움 될 것"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초기 경전'으로 불리는 빠알리 경전은 부처님의 '육성 원음'에 가장 가까운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주제가 다양해 초기불교 전공자들조차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전들은 '니까야'라는 이름으로 따로 묶여 전해지는데, 주제별로 구성된 〈상윳따 니까야〉를 제외한 〈니까야〉들은 일정한 기준 없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는 어려운 경전이다.

책 〈부처님의 당부〉는 〈니까야〉를 현대인의 시각에서 재정리한 것으로, 현대인에게 필요한 10개의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니까야〉에서 찾아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책의 특징 중 하나는 각 장마다 저자가 정리한 '들어가기'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들어가기'에서 해당 주제를 소개하고 각 경전의 해당 문구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독서의 동기와 효과를 높인다. 경전을 처음 접하는 대중에게는 공부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고, 이미 공부가 있어온 대중에게는 공부의 체계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자 민우 스님은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부처님 당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민, 갈등,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대중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처님의 당부〉는 하나의 유기적 구조에 다양한 경전들을 포함시켜 교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한 근본 뜻을 드러내어 독자들이 초기불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책에 실린 대부분의 경전들은 빠알리 3장의 4부 〈니까야〉를 출처로 하고, 〈쿳다까 니까야〉에 속하는 〈우다나〉와 〈이티웃따까〉의 경전들도 일부 포함됐다. 각 장에서는 초기불교의 기본 개념들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 경전 속에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설해지는지 살핀다.

△1장에서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시기 전부터 인간이 겪는 숙명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있다. 독자는 늙음과 죽음에 속절없이 내몰리는 인간 세상을 목격하게 된다.

△2장에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한다. 대중은 부처님이 잉태되고, 탄생하고, 출가하고, 구도의 길을 떠나고, 법을 깨닫고, 법을 전하는 이야기를 따라간다.

△3장은 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을 드러내면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경전들로 채워져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밀스럽거나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널리 가르칠 때 더욱 빛난다"고 적고 있다.



석굴암 본존불.

△4장에서는 불법이 가져다주는 세 가지 이익 중 첫 번째 이익을 다룬다. 이번 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익과 행복으로, 각자의 가정, 직장, 사회에서 윤리적 규범을 실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다. 초기불교는 출세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출가하여 엄격한 수행을 하는 종교로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니까야〉에 등장하는 부처님은 자비롭고 실용적인 스승으로, 사람들이 윤리적인 규범에 따라 조화롭고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질서를 세우고자 한다. 초기불교의 이러한 측면은 특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 부부간의 도리, 바른 생계, 국민에 대한 통치자의 의무 등에 대한 가르침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제5장의 주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익이다. 현생에 쌓은 복덕으로 내생에 유복하게 태어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익과 행복이다. 여기서 복덕이라는 말은 선한 업을 말하는데 윤회계에서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는 뜻이다.

△6장은 다음 장들로 전환하는 역할이다.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 세속에서 행복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증명하는 동시에 대중이 이 경계를 초월하도록 이끌기 위해 모든 조건지어진 존재의 위험과 불완전성을 밝히고 있다. 감각적 쾌락의 위험, 물질적 성공이 결점, 죽음의 필연성, 조건지어진 중생계의 무상함을 설명한다.

△7장은 해탈의 길을 개괄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여덟 가지 바른 길의 각 요소들을 분석하여 정의한 다음 비구의 수행 단계를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8장의 주제는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으로, 가장 주된 방법은 출가수행이다. 이 장은 마음 수련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극복하는 방법, 여러 가지 명상 기법, 장애를 제거하고 마음을 조복 받았을 때 얻는 경지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장은 통찰지를 주제로 하고 있다. 초기불교와 거의 모든 불교 학파에서 통찰지 또는 지혜는 해탈을 얻는 주된 수단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바른 견해, 다섯 가지 무더기, 여섯 가지 감각 기관, 열여덟 가지 요소, 연기, 네 가지 고귀한 진리와 같이 지혜를 계발하는 데 중심이 되는 교리를 위주로 하고 있다.

△10장은 그 과정의 주요 단계들을 설명하는 경전들을 모았다. 먼저 점진적인 순서대로 소개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큰 이정표가 될 만한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보는데, 바로 예류, 불환, 아라한 단계이다. 그리고 아라한 중의 아라한이신 부처님에 관한 경전들로 끝을 맺는다.

AI세상서 아이들이 사는 법



공심이의 비밀일기
김임천 글 · 그림
운주사 / 1만6천원

"본래 인류의 문명이란 것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노력의 결과잖아요. 그건 엄마도 인정하시죠? 드디어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답니다. 정말 꿈같은 현실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학생이 공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저 위대한 챗-사부가 다 해결해준답니다. 저희들은 그저 '놀 먹'이라고요. 아! 신난다. 이런 세상이 경전에서 말하는 극락이겠지요?"

AI(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인류의 문화와 생활 전반이 시시각각 새로운 국면이다. 위의 대사는 동화 〈공심이의 비밀일기〉의 주인공인 공심이가 엄마와 나누고 있는 대화의 일부다. 동화 속에서 세상은 새롭게 등장한 AI로 인해 혼란스럽다. 가정에서부터 그 변화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난다. 어린 딸은 달라진 세상에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있지만 엄마는 그런 딸과 달라진 세상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책 〈공심이의 비밀일기〉(대원불교문화총서 8)는 AI시대에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는 동화로 풀어낸 책으로, 어린이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다.

AI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됐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최첨단산업까지 AI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다. 더구나 디지털 감수성이 뛰어난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빠르게 AI시대에 몰입하고 있다. 근래에는 AI교과서 채택 문제가 교육적,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점점 더 AI에 기대는 공심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공심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물론 그 여행에서도 챗GPT의 도움을 받는다. 공심이는 철쭉꽃이 되어 바람과 구름에게 시달리고, 찢어져서 버려진 로또를 만나 같은 처지의 아픔을 나누며, 낮고 지저분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렁이로부터 보살의 삶을 배운다. 특히, "생각과 행동에 따라 신분이 결정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선택과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책은 다섯 편의 동화, 주인공 공심이의 명상 여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나'와 '우리'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교육원·포교원 30년 성과 자료집 발간



설립 배경부터 변화 과정 담겨
역대 원장 주요 활동과 전망도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조계종 교육원과 포교원이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30년 간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성과자료집 '30년사'를 각각 발간했다.

교육원 30년사에서는 교육원의 설립 배경부터 승가 제도 개선,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기 등 승가교육의 질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역대 교육원장 인터뷰를 통해 당시 승가교육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각 교육원장의 활동사진도 포함해, 업적과 기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체계별로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특수교육 △재(연수)교육의 태동과 정착, 발전 과정을 통계로 살펴본다.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 △교육, 교재편찬, 역경위원회 △승가고시제도 및 고시위원회 △교육아사리제도 및 교육아사리심사위원회 △장학승제도 및 장학위원회 △교육기관 교수사 현황 △학술진흥 △교육원 발간자료 등 교육제도 및 인물별로 역할과 성과도 정리했다.

포교원 30년사에도 그간의 포교 현황과 주요사업 등이 공개됐다. 제1대 포교원부터 제9대 포교원까지 30년의 기록을 담고 있는 이 자료집은 포교원을 이끌어온 정락·성타·정련·도영·혜총·지원·지홍·범해·선업 스님의 포교 업적과 교역직 종무원 및 일반직 종무원의 포교활동 결과를 담고 있다.

1장 '포교원이 지나온 길'에서는 역대 포교원장의 활동 경과를 통해 포교원의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본다. 2장 '포교원 주요 사업'에서는 △연령별 △분야별 △신도교육 및 조직 △포교종책 연구별로 포교원이 진행한 주요 사업들을 소개한다. 3장 '포교 전략과 향후 과제'는 포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부록에서는 '주요 연표' '역대 소임자' '포교대상 연혁' '포교사배출 현황' '단체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포교원은 "'포교원 30년사' 발간을 계기로 1994년 별원화된 포교원 30년 성과가 온전히 계승돼, 종단 포교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이것이 천태불교의 핵심이다!
천태불교의 이론과 실천
인도불교를 중국불교로 최초로 정착시키고 토착화시킨 천태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전반을 서구 철학자의 안목으로 알기 쉽게 조명한 역작이다!
브룩 지포린 지음/정천구 옮김/520쪽/값 30,000원

불교철학 초심자들을 위한 안내서!
불교철학 길라잡이
2,500여년에 걸친 불교사상의 변천과 전래과정을 추적하여 불교철학의 주요 얼개를 오늘의 언어로 보여주는, 불교의 지적 전통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 개론서이다.
이규완 지음/276쪽/값 20,000원

인공지능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공심이의 비밀일기
자꾸만 AI에 기대는 아이의 모습에 어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주인공 공심이와 함께 명상여행을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김임천 글 · 그림/216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